

골든 데이... 대~한민국

레슬링·태권도·볼링 등 5개 종목서

하루 동안 무려 금메달 11개 쏟아져

고흥 출신 김민철 레슬링 66kg급 우승

한국이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서 화려한 '골든 데이'를 만끽하며 일본과 치열한 종합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11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계속된 경기에서 전통적 강세 종목인 레슬링과 태권도에서 금메달 3개씩을 수확하고, 볼링과 사이클, 펜싱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하는 등 하루 동안 금 11, 은2, 동메달 7개를 쓸어담았다.

이로써 이날 오후 8시 현재 메달 합계 금 38, 은 35, 동메달 64개를 기록한 한국은 이 날 금4, 은4, 동6개를 추가하는데 그친 종합 2위 일본(금38, 은45, 동53)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아시아의 공룡' 중국은 금110, 은63, 동39개로 독주를 계속했다.

이날 일본 추격의 선봉장은 투기종목인 레슬링과 태권도였다.

레슬링은 66kg급의 김민철(23)과 84kg급의 김정섭(31), 120kg급의 김광석(29)이 차례로 금메달을 목에 걸어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일등 공신이 됐다.

특히 고흥 녹동초-광주체중-광주체고를 졸업한 김민철은 중학교 3학년때 전국무대에 이름을 알렸고, 고교 3학년 이후에는 66kg급에서 국내 정상을 달렸다.

이날 남자 +84kg급의 김학환(25), 여자

59kg급의 이성혜(22), 남자 67kg급의 송명섭(22)이 금메달을 보탠 한국 태권도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9개와 은·동메달 1개씩을 대거 수확해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사이클도 2위 탈환에 힘을 보탰다.

사이클 여자 3km 개인추발 결승전에 출전한 이민혜는 3분44초146의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끌고, 앞서 10일에는 장선재가 남자트랙 4km 개인추발 결승에서 4분35초433으로 사이클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볼링장과 벨로드롬, 펜싱장에서도 '대~한민국'의 힘을 유퍼펴졌다.

'무서운 신예' 최진아(22)는 카타르볼링 센터에서 열린 여자 마스터스 월피언결정전에서 2개임 합계 482점으로 397점에 그친 말레이시아의 메이란 에스더 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전날 개인종합 1위에 이어 대회 2관왕이 됐다.

이어 열린 남자부 마스터스에서는 조남이(의왕시청)가 455점으로 싱가포르의 옹 레미(411점)를 누르고 우승했다.

펜싱장에서는 박세리가 여자 에페 결승에서 중국의 중웨이핑을 15-13으로 놀려 펜싱 첫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여자축구는 준결승에서 일본에 1-3으로

▶ 11일 열린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84kg급 결승전에서 김정섭이 아히야 아부타비크(우즈베키스탄)를 꺾은 뒤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뛰어다니며 환호하고 있다. 오른쪽 아래는 이날 금메달 주역들. /연합뉴스

패해 3~4위전
으로 밀려났다.

이밖에 '한국 허들의 희망' 박태경(26·광주시청)은 육상 남자 110m 허들 예선 1조에서 13초87에 골인해 '황색탄환' 류시양(13초74)에 이어 2위로, 12일 밤 10시 5분에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올랐다. 또 한국 승마 장애물 대표팀은 경기 중 낙마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형칠 선수의 영전에 은메달을 바쳤다.

송상욱, 황순원, 주정현, 박재홍은 이날 장애물 단체 2라운드에서 팀당 상위 3명의 성적 합산, 별점 5를 기록, 1, 2라운드 합계 별점 13으로 사우디아라비아(별점 4)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최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라크 잡고 결승 가자"



베어백호, 오늘 밤 10시 준결승

20년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축구가 이라크와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인다.

한국남자축구대표팀은 12일 밤 10시 카타르 도하 알 가리파 경기장에서 2006 도하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준결승 이라크와 결전을 치른다.

팀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 10일 남북대결에서 3-0 완승을 거둬 상승세를 탔다.

약체 방글라데시, 베트남을 제대로 요리하지 못하고 조별리그 바레인전까지 출전을 벌여 실망감을 안겨줬지만 공·수 균형과 압박, 크로스 연결, 골 결정력까지 살아난 분위기다.

한국은 북한전에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한 박주영(서울)이 출전할 수 있고 좌·우 날개 염기훈(전북), 이천수(울산)의 컨디션이 좋은 데다 양쪽 윙백 김치우(인천), 오범석(포항)도 공격 거듭이 매섭다.

아시안게임 8경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수비와 하리 진용도 든든해졌다.

중장수비 김진규(이와타), 김치곤(서울) 듀오와 중원의 김두현

(성남), 이호(제니트), 오장은(대구) 삼각권대도 괜찮다. 수문장 김영광(전남)도 바레인전 선방 등으로 제 뒷을 하고 있다.

이라크는 1차 예선부터 치르느라 체력이 소진됐지만 결코 쉽게 볼 상대가 아니다.

한국은 이라크와 역대 A매치 전적에서 4승9무2패로 앞서 있지만 무승부가 워낙 많았다. 최근 네 경기는 모두 비겼다. 올림픽팀 대결에선 한국이 2승으로 우위다. 아시안게임에서는 1974년 테헤란대회 당시 1-1로 비긴 이후 32년간 만나지 못했다.

이라크는 조별리그에서 중국에 0-1로 패밀을 잡혔지만 남은 두 경기를 잡아 2승 1패로 8강에 턱걸이한 뒤 예상을 깨고 강적 우즈베키스탄을 2-1로 놀렸다.

이라크에는 두 골을 넣은 유네스 칼레프가 경계 대상이다. 그러나 이라크는 8강에서 여덟 짬의 무더기 경고를 받아 카리르 무하메드 등 주전 서너명이 출전하지 못하는 게 약점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오늘의 주요 경기

▲ 양궁
△ 남자 개인 결승(15시 45분)

▲ 육상
△ 여자 장대높이뛰기 등(22시)

▲ 농구
△ 남자 8강전 대 중국(23시)

▲ 복싱
△ 64kg급 결승 등(20시)

▲ 사이클
△ 남자 단체추발 결승 등(18시 30분)

▲ 다이빙
△ 남녀 1m 스프링보드 결승 등(16시)

▲ 펜싱
△ 남녀 복식 예선 등(15시)

△ 남자 플뢰레 단체 결승 등(15시)

▲ 승마
△ 장애물 개인전(15시)

▲ 축구
△ 남자 준결승 대 이라크(22시)

▲ 하키
△ 남자 준결승 대 일본(13일 02시)

▲ 공수도
△ 여자 쿠미테 48kg급 결승 등(15시)

▲ 유토
△ 슬레이저 금 죠 촉이스 등(17시)

▲ 세팍타크로
△ 남녀 복식 예선 등(15시)

▲ 소프트볼

△ 예선 대 일본(14시 30분)

▲ 스쿼시

△ 남녀 8강전(18시)

▲ 테니스

△ 남녀 단식 준결승 등(16시)

▲ 배구

△ 여자 5~6위전 대 카

자흐스탄(20시)

△ 남녀 8강전(18시)

△ 남녀 단식 준결승 등(16시)

△ 여자 5~6위전 대 카

자흐스탄(20시)

△ 남녀 8강전(18시)

△ 남녀 단식 준결승 등(16시)

△ 여자 5~6위전 대 카

자흐스탄(20시)

△ 남녀 8강전(18시)

△ 남녀 단식 준결승 등(16시)

△ 여자 5~6위전 대 카

자흐스탄(20시)

△ 남녀 8강전(18시)

△ 남녀 단식 준결승 등(16시)

△ 여자 5~6위전 대 카

자흐스탄(20시)

△ 남녀 8강전(18시)

△ 남녀 단식 준결승 등(16시)

△ 여자 5~6위전 대 카

자흐스탄(20시)

△ 남녀 8강전(18시)

△ 남녀 단식 준결승 등(16시)

△ 여자 5~6위전 대 카

자흐스탄(20시)

△ 남녀 8강전(18시)

△ 남녀 단식 준결승 등(16시)

△ 여자 5~6위전 대 카

자흐스탄(20시)

△ 남녀 8강전(18시)

△ 남녀 단식 준결승 등(16시)

△ 여자 5~6위전 대 카

자흐스탄(20시)

△ 남녀 8강전(18시)

△ 남녀 단식 준결승 등(16시)

△ 여자 5~6위전 대 카

자흐스탄(20시)

△ 남녀 8강전(18시)

△ 남녀 단식 준결승 등(16시)

△ 여자 5~6위전 대 카

자흐스탄(20시)

△ 남녀 8강전(18시)

△ 남녀 단식 준결승 등(16시)

△ 여자 5~6위전 대 카

자흐스탄(20시)

△ 남녀 8강전(18시)

△ 남녀 단식 준결승 등(16시)

△ 여자 5~6위전 대 카

자흐스탄(20시)

△ 남녀 8강전(18시)

△ 남녀 단식 준결승 등(16시)

△ 여자 5~6위전 대 카

자흐스탄(20시)

△ 남녀 8강전(18시)

△ 남녀 단식 준결승 등(16시)

△ 여자 5~6위전 대 카

자흐스탄(20시)

△ 남녀 8강전(18시)

△ 남녀 단식 준결승 등(16시)

△ 여자 5~6위전 대 카